



하나된 단결력, 기초부터 다져진 안전. 그 어떤 유해요소도 두렵지 않다

-한전산업개발(주)영동사업소-



▲ 김명갑소장

여름의 바다는 차갑다. 그러나 겨울의 바다는 그 무엇도 포용해 줄 수 있을만치 따뜻하다. 시리도록 서글픈 마음은 겨울바다와 인사하는 순간 평온해지고, 말끔히 씻겨 내려간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처럼 우리내 현장의 유해·위험 요소가 부서지기를 기원하며 아름다운 강원도 강릉시에서 부서진 유해·위험 요소의 뿌연 재와 안전을 향한 밝은 등불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니 한전산업개발(주)영동사업소(소장 김명갑)에 닿았다.

앞으로는 검푸른 동해바다. 뒤로는 해발 832m의 대관령이 병풍처럼 우뚝 솟아, 4계절 각기 다른 모습을 뽐어내는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공기로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이곳 한전산업개발(주)영동사업소는 1995년 1월 15일 개소 이래 영동화력발전소 제1·2호기 상하탄설비운전, 회차리설비운전, 배연탈황설비운전 등의 업무를 통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폐기물 재활용 등의 환경오염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 「실생활의 안전」, 「우리 모두의 안전」

영동사업소 직원들은 사무실만 벗어나면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끔은 점심시간 식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는 「실생활의 안전」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강조하는 김명갑 소장의 마인드와도 상통한다. 위험요소는 앞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좌우, 뒤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여 항상 조심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개선하는 등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자신이 일시적으로 사고를 피하였다 하더라도 비켜간 사고에 안주하지 말고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동료를 위해 스스로 개선하고 건의하여 나만의 안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영동사업소 식구 모두가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도 영동지방은 2조 3천여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영동사업소 직원들의 하나된 단결력은 안전사고 하나 없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 하나된 단결력에서 이룩된 무재해 10배

뿐만 아니라, 하나된 영동사업소 직원들의 단결력은 지난 2003년 9월, 영동지방에서 4번째로 무재해 10배를 이룩하여 개개인의 안전은 물론, 사업장의 안전품질 확보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이를 위해 영동사업소는 1일 안전소장제, 안전미팅, 위험예지훈련 등 다양한 활동 외에도 안전점검에 중점을 둔다. 각 직급에 따라 현장 점검 횟수를 규정하여 규정치 이상의 점검·관리를 의무화하였고, 그날 그날 작업공정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위험요소 제거 후 공정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 개인의 컨디션을 작업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작업장소로 배치하는 등 인적 실수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에 위탁하여 월 1회 보건교육과 개인 건강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근로자에게 개개인의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작업환경 개선에 반영하는 등 유해·위험요소에 대해서는 한치의 자리도 양보하지 않는 한전산업개발(주) 영동사업소의 마음이 엿보인다.




이외에도 영동사업소는 본사의 「무재해·무사고·무고장 목표달성」이라는 안전보건경영목표와 한국남동발전(주) 영동화력발전처의 경영방침 중 하나인 ‘안전관리 행동준칙’을 병행·실천하여 지속적인 무재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 변혁의 시대에 맞는 자기계발에도 적극 노력해야

21C는 변화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에 앞장서기 위해 한전산업개발(주) 영동사업소는 직원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회사의 전문인력확보를 위해 상급학교진학 및 능력개발 교육 등의 자기계발 활동에도 적극 지원하고 배려한다.

이외에도 사업소내 축구회, 테니스회 등의 씨클활동을 통한 직원들의 여가활동은 활기찬 직장조성과 심신단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무재해 10배라는 열매를 영동사업소 가족 모두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여겨, 그 값진 결실을 무재해 15배, 20배로 승화시키고자 한다는 이곳 한전산업개발(주) 영동사업소 식구들의 마음에서 새해 밝힌 안전을 향한 등불이 더욱 밝게 빛날 것임을 감히 예견해 보며, 무재해 15배, 20배 달성으로, 푸른 바다를 마당삼아 막잡은 가자미회에 소주 한잔 곁들일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성호연기자〉

